

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25. 5.23(금)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No. 453)

미 주

- 美 국무부, 5개국 대상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 5.15 언론은 美 국무부가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으며, 이 조치로 해당 국가에 美國의 무기와 방위 서비스의 판매, 이전이 금지된다고 보도
 - ※ 쿠바는 지난해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다시 포함되었으며 북한은 1997년 목록이 처음 작성된 이후 29년째 매년 명단에 포함
- 美, 팜스프링스 폭발 테러로 1명 사망
 - 5.19 언론은 美 캘리포니아주 남부 팜스프링스 난임 치료 클리닉 인근에서 차량 폭발로 용의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건을 FBI 현장 조사결과 "목적의 지닌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고 보도
 - ※ 同 사건으로 사망한 용의자가 남긴 SNS와 녹음파일에는 세상에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된다(反출생주의)는 신념이 담겨있다고 부언

유 럽

- 러시아-스리랑카, 첫 대테러 합동 군사훈련 추진
 - 5.15 언론은 러시아와 스리랑카가 처음으로 對테러 합동 군사 훈련을 개최하기 위해 국방부 관계자들이 훈련 준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양국이 세계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개발할 것이라고 보도
 - ※ 다만, 양국군의 첫 합동 훈련 장소와 일정은 현재까지 未공개
- 덴마크 법원, 드론 테러 모의한 자국민 법정 구속
 - 5.20 언론은 덴마크 법원이 테러 공격 목적으로 드론 구매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 남성을 법정 구속하였으며, 현지 당국은 하마스와 관계된 덴마크 갱단의 구성원으로 추정 중이라고 보도

아 테

- 韓, 경주 APEC 정상회의 관련 경호안전통제단 구성 완료
 - 5.15 언론은 대통령경호처가 정상회의시 각국 정상 등 대표단의 신변안전과 모든 행사장·숙소·공항 등에 대한 경호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의 구성이 완료되었음을 밝혔다고 보도
 - ※ 통제단은 6개의 본부(경호작전, 테러정보지원, 경찰·軍·소방·해경)로 조직되었으며, 유기적이고 일원화된 지휘체계에 주안을 두고 운영될 예정
- 인도, 주요 테러 공격의 핵심 공모자 괴한에 의해 사망
 - 5.19 외신은 파키스탄에서 LeT의 핵심 간부인 「사이폴라 칼리드」가 3명의 무장괴한에게 살해당했으며, 同人은 인도에서 발생한 3건의 주요 테러 ‘05년 인도과학연구소(IISC) 테러, ‘06년 힌두민족주의 단체(RSS) 본부 테러, ‘08년 중앙준비경찰(CRPF) 캠프 테러 사건의 핵심 공모자로 파키스탄에서 은신 중 살해당했다고 보도
 - ※ LeT(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05년 델리 폭탄테러, ‘08년 뭄바이 테러 등 인도내에서 테러 활동을 전개하며 인도-파키스탄 긴장 고조의 주요 요인인 테러단체

중 동

- 하마스 수장, 이스라엘軍 공격으로 숨진 채 발견
 - 5.18 언론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수장 「무함마드 신와르」가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그간 협상에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던 그가 사망하면서 휴전 합의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보도

아프리카

- 소말리아, 모가디슈 신병모집소에서 자폭테러로 13명 사망
 - 5.19 언론은 모가디슈의 軍 신병모집소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13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쳤으며, 공격의 책임을 주장하는 단체가 현재까지 식별되지 않아 알샤바브 소행으로 추정한다고 보도
 - ※ 언론은 지난 ‘23년 7월에도 모가디슈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알샤바브의 공격으로 군인 25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부언

프랑스 리옹, 관광명소에서 소규모 자생 폭탄테러

- '19.5.24 프랑스 리옹 변화한 거리의 빵집 앞에서 종이봉투에 담긴 급조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이 터져 어린이 등 14명이 부상
 - 알제리 출신 용의자 「무함마드(24세)」는 관광비자를 통해 '17년 프랑스로 입국 후 지내다가 극단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테러 감행
 - ※ ISIS에 충성 맹세 후 유럽 선거 이틀전에 의도적으로 테러를 감행하였다고 언급
 - 프랑스 당국은 사건 직후 인근 지하철역 폐쇄 후 공공장소 보안을 강화하고, CCTV·목격자 진술 등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3일만에 검거
 - ※ 급조폭발물은 나사못 등 금속부품·원격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2.3M 높이·인근 150M까지 발사)되어 있었으며, '15년 프랑스 파리 테러에 사용된 유형이라고 부언
 - 이후 테러 조직과 관련한 폭발물 제조·소지 등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형사법원이 올해 4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 同 사건은 프랑스 사법부가 자생적 테러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
- ⇒ 조직적 지원 없이 급진화된 개인의 소규모·자생적 테러가 위협으로 대두, 국내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등 급진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테러 상식

Weekly Terrorism Trends

〈 급조폭발물(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 〉

- (정의) 정해진 규격이나 절차와 무관하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직접 제작한 폭탄이나 폭발물 또는 기존 폭탄을 개조한 형태의 폭발물을 의미
- (특징)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조합하여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 폭탄에 기폭장치를 추가하여 원격으로 폭발시킬 수 있도록 제작
 - 은밀하고 기습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정규전보다는 비정규전이나 무장단체들이 테러에 주로 사용
- (대응) 전파교란 기술을 이용하여 IED의 원격조종 기폭장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등장하였으나 그 효과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음